

## 《우리말샘》의 활용과 발전 방향: 신어, 생활 용어의 구축

남길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우리말샘》의 꽃, ‘신어’

지난 10월 개통된 《우리말샘》은 ‘100만 어휘를 수록한 사전’(규모), ‘사용자 참여형 사전’(운용 방식), ‘역사·규범 정보, 삽화·사진·동영상 정보, 어휘 지도 등을 수록한 사전’(정보의 범위) 등에서 ‘국내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늘 뒤따른다. 그러한 차별성 중에서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는, 《우리말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특성을 꼽자면, ‘꽃중년, 뇌섹남, 모루 밍족’ 등과 같은 ‘신어’를 대폭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방형’을 지향하는 《우리말샘》이 기존 폐쇄형 사전에서 반영하지 못한 역동적인 언어 현실을 담을 수 있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말샘》에 대한 기사나 대중의 관심은 상당 부분 신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 비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은 신어가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신어를 등재할 수 있는지 등은 《우리말샘》의 차별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 것이다. 《우리말샘》 100만여 표제어에서 방언어나 북한어 등을 제외한 일반어는 33만여 개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

리말샘》의 신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신어 연구자의 관점에서 감사하지만 과분한 현상이다.

‘신어’가 이렇듯 《우리말샘》의 간판 스타로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일 듯하다. 《우리말샘》이 국민 참여형 사전이라는 것, 또 온라인과 모바일 의사소통의 확산에 따라 신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어 현실이다. 특히 후자, 즉 신어의 증가와 신어 처리의 문제는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말샘》에서 ‘신어’를 어떻게 처리하고 운용할 것인가의 주제는 관심을 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다.

## 2. ‘신어’의 관점에서 본, 사용자 참여형 사전의 의의와 신어 등재의 쟁점

‘신어’의 등재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당대 언어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대중의 의사소통에서 새로이 등장한 의미 단위를 기록함으로써 당대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전학 연구자로서 기대하는 것은, 신어 등재 등과 같은 편찬 과정으로의 참여가 국민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기에 어떤 수단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해’ 중심의 사전(수동 사전, passive dictionary) 사용, 즉 주로 사전을 모르는 어휘를 찾는 용도로 사용해 온 국내 사전 사용의 풍토를 고려할 때, 개인이 직접 편찬자가 되어 표제어(headword)를 수록하거나 표제항(entry)을 기술하는 일은 그간 사전학자들이 주장해 온 사전 사용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말샘》 운용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참여형 사전으로서 ‘신어’ 등재와 관리, 활용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용자 참여형 사전’이라는 새로운 시도의 의의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말샘》 공개 이후, 사용자들은 빠른 속도로 신어를 등재하고 있는데,<sup>1)</sup> 사용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통제하고 반영할 것인가는 고민거리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표제어를 운영자에게 추천하는 ‘집필 요청하기’와 표제항 전체를 기술하는 ‘직접 집필하기’의 두 가지 기능을 운영하면서, 후자를 통해 사용자가 올린 뜻풀이와 예문을 감수자가 거의 새로 기술하다시피 수정하는 것은 두 기능을 구분한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뜻풀이의 신뢰성, 용례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반 디셔너리(Urban Dictionary)<sup>2)</sup> 등의 국내외 개방형 사전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자 뜻풀이를 사용자들끼리 경쟁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기술한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 복수의 뜻풀이를 별도의 구획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전의 표제어 구성, 뜻풀이나 용례의 선별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언어 자원의 관리가 언어학자나 특정 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언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 참여 기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들이 주로 올리는 신어들은 유행어이거나 ‘신어스러운 신어’<sup>3)</sup>가 대부분인 경향이 있다는 점, 신어와 미등재어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신어’라기보다 넓은 범위의 ‘미등재어’가 수록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1)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1994년도 이후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해 온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마도 《우리말샘》 공개 시점에서 미처 신어 조사 사업 결과물에 등록된 신어를 아직 수록하지 못한 때문인 듯하다.

2) <http://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calling+dingo&defid=7870679/>.

3) 메카프(Metcalf, 2002: 152~164)는 신어의 사전 등재 기준의 하나로 ‘야단스럽지 않음(unobtrusiveness)’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때 야단스러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비속어와 유행어의 범주를 넘나드는 어휘는 형태적으로 처음 등장하여 신어임이 뚜렷하게 인지되는 ‘야단스러운’ 형태인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알뭇’, ‘핵노잼’과 같은 부류는 신어로 인식되기 쉽지만, ‘성과피크제’, ‘임금피크제’와 같은 구 단위, 전문 분야 신어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반인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전문어로서의 신어, 대중의 눈에 신어로 인식되기 어려운 ‘명사+명사’ 합성어나 구 단위는 신어로 선택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역사의 기록으로서의 신어 수집의 의의를 고려할 때, 사용자 등재 신어는 실제로 당해 연도의 ‘신어’라기보다 넓은 범위의 ‘미등재어’라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이다.<sup>4)</sup> 국립국어원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는 신어 조사 사업은 이러한 부분의 빈틈을 메우고 연도별 신어를 수집하는 데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규 신어의 등재와 더불어 1994년부터 수행된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우리말샘》에 등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신어는 기존 어휘와 달리 생성 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이 고려되면 좋을 것이다. 2015년도 신어 조사 사업에서부터 수행된 지난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도 어휘 생명 주기 그래프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우리말샘》의 차별성을 돋보이게 하는 데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참여형 사전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면, 기존의 형태가 의미 확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 ‘의미적 신어’에 대한 기술도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

4) 2005년 이후 신어 조사 사업에서는 ‘조사 시점에서 최근 1년 동안 새로 생겨난 어휘’로 신어를 규정하고 조사해 왔다. 따라서 최초 출현일이 언제인가가 ‘미등재어’와 ‘신어’를 구별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에서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형태를 ‘신어’로, 해당 연도 이전에 최초로 발생하였으나 미처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어휘를 ‘미등재어’로 구분하여 기술해 왔다. 실제로 ‘미등재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사전에서 표제어로 수집되지 못한 생활 용어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말샘》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신어’를 직접 찾는 작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표제항 내에 ‘최초 출현일’ 정보도 기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 3. 몇 가지 제언: 신어의 교육적 활용과 신어 연구의 방향

한 나라의 사전의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때 사전의 수준이란 단지 방대한 표제어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사전이 있는지, 사전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관점과 기술이 존재하는지, 각 표제항의 기술이 한 언어의 현실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사전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와 사전 활용의 양상 또한 사전과 관련한 문화의 수준을 보이는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어이든지 미등재어이든지 《우리말샘》이 더 많은 새로운 어휘로 채워지고 국민의 힘으로 등재된 어휘들이 우리말과 표현을 풍부하게 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인데, 그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의 생활과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이용하는가이다.

우선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말샘》에 공개된 신어의 모습들은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의 좋은 자료가 된다. 최근 대중들의 신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후, 신어는 학습자의 참여를 가장 능동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조어론 수업에서, 신어는 기존 문법 개론서의 예시, 즉 ‘솜뜯집, 오리배, 돌다리’ 등의 고전적인(?) 예시를 보완하는 생동감 있는 조어 현상을 보여 주는 예를 제공한다. 즉 신어는 한국어 조어 현상에 현장감 있는 예시가 되고, 전통 문법의 조어 유형을 발전적으로 재분류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을 보여 준다. 실제로 대학교 문법 시간에 신어를 예로 들 경우 학생들은 더 수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신어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국어 교육에서 역시 신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어론뿐만 아니라 외래어 신어에 대한 언어 정책의 문제, 외래어 정책에 대한 논의의 실제적인 예로 활용하거나, 매체 교육 등에서 장르나 매체에 의존적인 신어 유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직접 신어를

집필하고 직접 《우리말샘》에 등재해 보게 하는 것도 꽤 흥미롭고 의미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2015년 신어 조사 사업 이후 논의되어 온 과거 신어에 대한 10년 이상의 사용 추이 조사의 결과물도 언어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좋은 자원이 된다. 양복, 양옥, 양배추 등은 개화기에 생겨난 신어이고, 신탁통치, 해방, 친일파 등은 1945년 신어임을 고려할 때(남기심, 1983; 강신항, 1991), 어떤 신어가 살아남는지, 신어가 지속성을 가지고 사용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남길임(2015)에 의하면, 2005년, 2006년 신어 조사 사업 결과물 938개 중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어의 형태는 250여 개 정도인데, 살아남은 신어의 조어론적 특성, 언어 내적·언어 외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신어 수집과 기술의 새로운 시도로서 《우리말샘》이 시작되었고 사전학자로서 열린 자세로 《우리말샘》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신어 조사 결과물이 《우리말샘》에 완전히 등재되고, 참여형 사전으로서 《우리말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태학사.
- 남기심(1983), 새말(新語)의 생성과 사멸, 이기문 외,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192~228.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한글》 제310호, 205~233.
- 남길임 외(2015), 《2015년 신어》, 국립국어원.
- Metcalf, A.(2002), *Predicting New Words: The Secrets of Their Success*, Boston: Houghton Mifflin.